

폭력배가 정계까지 넘봐?

전남경찰, 3개대학 총학생회장 배출 순천 중앙과 29명 조폭 규정

경찰이 순천지역 중앙동 일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에 개입해온 폭력 패거리 '중앙파'를 이른바 '조폭'인 범죄단체로 규정, 처벌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이미 개별 범죄 행위로 처벌받았지만 추후 수사 과정에서 통솔 체계와 행동강령을 갖추고 단합대회 등으로 기강을 세우면서 유흥업소에서 조직 자금을 확보하는 등 '조폭' 구성 및 활동 상황이 명확하다는 판단에 따른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폭력조직을 결성해 폭력을 휘두르고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순천 중앙과 29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조항을 적용, 가중 처벌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 입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범죄단체 구성·활동' 죄목으로 기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개별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뒤라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전남청은 ▲해남 심계파 ▲목포 오거리·서산·수노아파 ▲광양 라이온스·백화파 ▲여수 중앙·신시민과 등 8개 폭력조직을 관리대상으로 보고 있는 만큼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면 전남에 신흥 폭력조직이 새로 생겨나는 셈이다.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는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고 단순 조직원도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조폭' 처벌 규

정이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두목 박모(45)씨와 부두목 박모(45), 행동대장 김모(38)씨 등으로 간부급을 구성하고 행동대원 등 모두 29명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단합대회나 애경사 참석 등으로 기강을 세워 조직을 운영하는 등 범죄단체 구성 여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시내바스를 타지 않는다 ▲2년 선배부터는 열중쉬어 자세로 선배가 갈 때까지 서 있는다 ▲반대파에게는 지면 안된다 등 7개 항목의 행동강령도 정하고 조직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흥업소와 나이클럽 등을 상대로 주류, 과일류를 강제 납품받도록 한 혐의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아울러 대학 총학생회를 '접수', 교비와 학교 지원금을 횡령하는 등 사업 영역도 확장해왔으며 일부 학생회장은 향후 정계 진출까지 계획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순천 3개 대학에 조직원들을 입학시켜 최근 10년간 모두 18명을 총학생회장에 당선되게 한 뒤 교비와 지원금 등 수익 원을 횡령하도록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조폭 총학생회장'과 관련해 4명을 구속했으며 지난해 10월~지난 1월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등을 구속한 바 있으며 나머지 조합원도 강제 납품반도록 한 혐의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지흥기자 dok2000@kwangju.co.kr

죽은 소로 갈비탕 '양심불량'

북부경찰, 농장주 등 2명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26일 농장에서 폐사한 소를 밀도살해 한우 전문시장에 관 협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농장주 박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1월 25일 오후 8시께 장성군 북일면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한우 1마리가 폐사하자 밀도축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한우전문시장에서 갈비탕 등으로 손님에게 팔아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장성군에 따르면 박씨는 소가 다쳐서 죽었다고 주장하

고 있으며 별도로 군에 폐사 신고를 하지 않았다.

통상 가족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폐사한 경우 해당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받은 시·군은 축산기술연구소에 의뢰해 수의사 검안 등을 통해 가족의 사인이 전염병인지 일반사망인지 규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경찰은 박씨의 식당과 일대 축산물 판매 업소를 상대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해 추가 밀도살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762) 김장두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

뇌물 수수혐의 구속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배모(61)씨를 특가법위반(뇌물)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07년 5월~9월에 광양시에 조선회 건립계획을 추진하던 S조선 주모 사장에게 인허가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당시 뇌물혐의에 따라 검찰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술취해 노래방서 장인-사위 난투극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뒤엉켜 다툰 사위와 장인이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한모(54)씨는 지난 25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한 노래방에서 만취, 자신을 데리러온 사위 이모씨(30)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무속인인 한씨는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사위가 찾아와 "술에 취해 뭐하느냐"고 말한 데 화가나 사위와 싸운 것으로 판명.

/최승철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청소년 20% “자살 생각해 봤다”

질병관리본부, 지역 중·고생 3100명 설문... 광역시중 두번째

광주 지역 청소년 20%가 최근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6월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생 3149명을 상대로 실시한 '제8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청소년 20.1%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과 7개 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최근 1년간 자살하기 위해 구체

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는 답변도 6.5%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6.3%)보다 높은 수치다.

자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은 각각 43.3%, 31.4%로 전국 평균(각각 41.9%, 30.5%)보다 높았다.

2010~2011년 광주 지역 10~19세 자살자 수는 15명에 이른다.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 이유로는 성적과 진학, 가정불화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발전연구원 김기곤 연구원은 "광주에서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기관 단위의 노력이 전개됐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또 김 위원은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예방, 대처, 사후 관리 등에 이르는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영유아 영양 보충식품

들고 있다.

6일 광주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보건소 직원들에게 영양 보충식품 등에 대한 설명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산·나주 금은방 절도 용의자 검거

광산과 나주의 금은방 절도(광주일보 26일자 7면 보도) 용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나주경찰은 26일 나주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18초'만에 훔쳐 달아난 김모(31)씨 형제 등 일당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새벽 3시20분께 나주시 이창동 김모(여·56)씨의 금은방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18초만에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명은 친형제 2명과 어머니가 같은 의복형제, 친구 사이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광산경찰도 이날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수억원 대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38)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새벽 금은방 사업장비시스템을 해제한 뒤 금은방에 침입해 매장 진열대에 있던 귀금속 대부분과 금고 안의 금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5억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금은방에서 김씨를 검거했으며 피해품 대부분도 이곳에서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와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승철기자 srchoi@kwangju.co.kr

/나주=정현철기자 chung@

4대강 보 소음피해 첫 배상 결정

환경부 분쟁조정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들어선 보(泐)에서 강물이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인근 주민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낙동강 낙단보의 월류수 낙하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A씨에게 국토해양부가 75만8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상주시 낙동강변의 2층짜리 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낙단보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음에 시달렸으며 배상을 신청했다.

A씨 집은 낙단보 우안에서 150m 정도 떨어져 있고 월류수가 떨어지는 지점보다는 지반이 17.5m 높았

다. 낙단보는 수문을 여닫을 수 있는 가동보 3개와 수문 없이 물을 흘려보내는 고정보 2개로 이뤄져 있다. 고정보를 지난 강물은 7.5m 높이를 수직으로 떨어진다.

위원회가 지난달 직접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A씨 집 1층은 53dB(데시

벨), 2층은 61dB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주시가 측정한 소음도 역시 주간 61.1dB, 야간 57.4dB로 비슷했다. 60dB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소리 크기다. 사람들이 통상 60dB 정도부터 소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회는 최대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주간 55dB, 야간 45dB을 모두 웃돌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정했다.

위원회는 A씨의 집 근처에 도로가 있긴 하지만 통행량이 거의 없어 소음 대부분이 낙단보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국토부가 배상과 함께 적절한 방음대책도 마련하도록 결정했다.

/연합스

Canon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개논총판) 문의전화 062)383-3000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精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억제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물을 흘리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 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눈을 쳐다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고나 눈에 아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함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다라한의원 중추원 원장 김동준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땀이 항상 뻘뻘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기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으로 대처해야 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가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

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맥박,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본다.

인다라한의원
www.indara.co.kr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106-98-018호 (광교)